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구조와 농경생산

나 건 주
금강문화유산연구원

〈목 차〉

- | | |
|--------------------------------|------------------------|
| I. 머리말 | 2. 공지와 초대형 주거의 사회적 의미 |
| II.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구성 단위 | 3. 천안 백석동 청동기시대 취락의 구조 |
| III.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성장 | 4.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생산 |
| IV.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구조와 농경생산 | V.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네트워크 |
| 1. 곡교천유역 청동기시대 전기후 엽 취락 구조의 특징 | VI. 맺음말 |

I. 머리말

인간은 지속적인 문화적 활동을 통해 지표를 개조하여 인위적인 문화경관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인간의 문화적 활동은 주거를 중심으로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산업화 이전의 자연취락의 기초적인 경제적 기반은 농업활동이었을 것이다. 농업에 기초한 인간집단의 문화적 활동이 반복적으로 영위되는 일정한 공간범위가 광위의 취락 개념에 해당할 것이다. 광위의 취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로는 경작지, 도로망, 쓰레기터, 의례장소 등 다양하지만(추연식 1997: 49), 현재까지 남아있고 육안으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은 인간활동의 중심이 되는 주거가 조성된 공간 일대인데, 방어의 필요성, 가족이나 씨족의 유대, 인간활동에 유리한 자연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주거가 밀집된다고 한다(石井英也 2001: 60). 이러한 주거와 부대 시설이 밀집된 일정한 공간범위를 협의의 취락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취락은 이와 같은 협의의 취락이 추가되며, 농경지, 묘역 등 광위의 취락요소들도 필요에 따라 다루고자 한다.

인간은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종 생산활동과 공동시설물 관리 등에 조직적인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공동체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발표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고고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은 취락집단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일관된 분석과 자료의 양을 고려하여 충청지역 자료에 국한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구성 단위

다음은 취락을 인지하기 위한 위한 최소한의 구성요소에 대한 것이다¹⁾. 가락동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 등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주거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이고, 내부에 2개 이상의 다수의 노지가 설치된 예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복수의 화덕을 가진 주거는 복수의 세대가 동거하는 확대가족적 성격의 세대공동체의 주거형태로 이해된다(이강승·박순발 1995, 안재호 1996). 이러한 확대가족적인 동거집단은 경작지 확보를 위해 일시에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화전농경과 같은 조방적이고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강한 농경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견해(이강승·박순발 1995: 294)가 제시된 이후 널리 수용되고 있다. 천안·아산지역에 분포하는 전기의 취락유적 중에는 일정범위 이상 제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기의 장방형 주거지로 구성된 유적(천안 유리 유적, 신방동 유적 시굴 1지구, 아산 석곡리 유적, 명암리 유적 3·6지점 등)이 다수 존재한다. 거주 인구의 수를 고려할 때, 이 유적들의 성격을 온전한 농경을 기반으로 조성된 취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복수의 화덕을 가진 주거지를 복수의 세대가 동거하는 확대가족적 성격의 세대공동체의 주거로 이해한다면, 취락의 주거군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독립된 사회적 단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생계경제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화전농경이 상정되고 있는데, 단위 주거지 1기에 거주하는 인력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농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명유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식량획득 방식이 존재하였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소비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이루어졌음은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1기의 주거지로 구성된 유적의 경우를 온전한 취락으로 상정할 수는 없지만, 취락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 단위로 상정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청동기시대 전기의 장방형 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장방형 주거를 확대가족적 성격의 세대공동체의 주거형태로 보는 주요한 근거는 단일 주거에 복수의 노지가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각각의 노지를 독립된 취사단위로 설정하고 설치

1) 유적의 규모에 대한 파악은 취락의 사회적 진화단계나 취락간의 상호관계 분석에서 규모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권학수 199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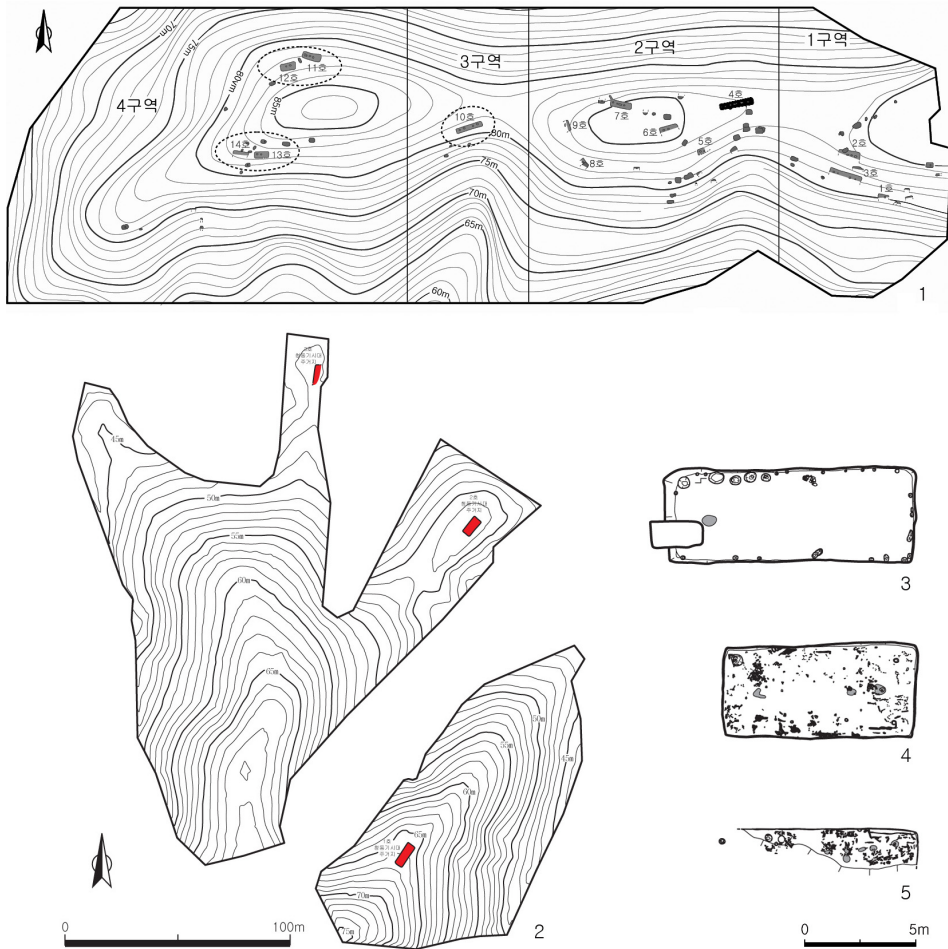
된 노지의 개수만큼 가족단위를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 노지의 설치가 과연 단위가족의 취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타당한 근거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수혈주거에 설치되는 노지의 기능으로는 취사를 포함하여 난방과 조명 등의 기능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난방과 조명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난방의 경우 실험고고학적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1기의 노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오규진·허의행 2006). 따라서 공간활용에 제약을 주는 복수의 노설치는 비효율적이며, 더욱이 당시의 환경이 노에 사용되는 땀감의 공급이 제한적이었을 것을 고려하면 복수의 노는 난방을 위한 용도 외에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옥내 작업을 위한 조명기능의 경우 또한 땀감 확보 등을 고려하면 특정 공간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기의 장방형 주거에서 확인되는 복수의 노의 가장 유력한 용도는 개별적 취사를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기의 장방형 주거의 발굴자료를 살펴보면 증개축 양상이 다수 확인되는데 대부분 노의 신설과 연동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의 장방형 주거가 확대가족적 성격의 세대공동체의 주거형태로 상정가능하다면, 1기의 장방형 주거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생활단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방형 주거는 개별 취락 안에서도 독립된 생활단위로 영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1>의 아산 명암리유적 11지점의 유구배치 중에서 10호 주거지의 분포를 살펴보면, 취락이 입지하는 구릉 중단의 3구역에 단독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동쪽과 서쪽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9호, 11호 주거지와 이격거리가 각각 36m, 69m 정도이다. 남쪽 사면으로는 3기의 수혈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10호 주거지 자체로 독립된 생활단위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취사행위 등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의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영위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다수의 노동력이 수반되는 농경생산활동 및 취락의 공동시설을 관리하는 행위 등에는 취락 전체의 가용인력이 모두 동원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의 용화동 가재골유적 2지점을 살펴보면, 3기의 주거지가 樹枝狀으로 분지된 3개의 구릉정상부에 각각 한 기씩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거리이지만, 능선을 통해 또는 곡부를 가로질러 각각의 주거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다. 조사된 3기의 주거지 모두 노가 설치된 점으로 보아 모든 주거는 통상적인 주거형태에 해당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일상의 소비활동은 각각의 주거별로 독립적으로 영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한 농경생산 활동에는 3기 주거의 모든 가용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체 주거의 수로 보아 수전보다는 화전과 같은 농경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전농경과 같이 불을 제어하고 화전을 조성하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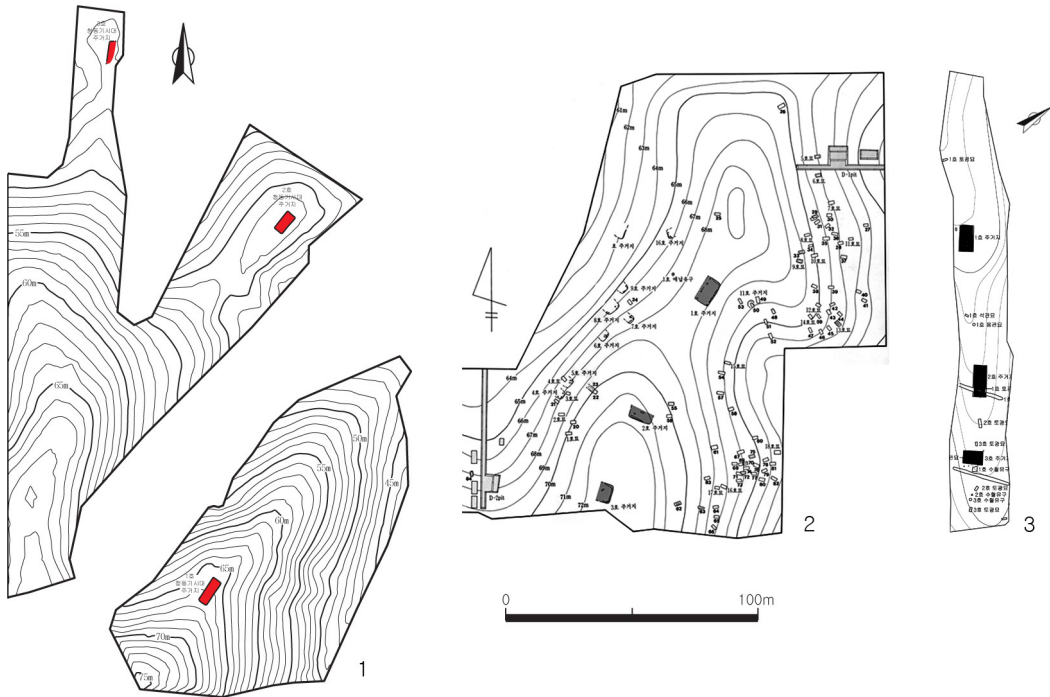
는 일정 이상의 노동력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생산활동에는 전 주거의 구성원이 동원되고 생산물의 소비는 각각의 주거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을 구성하는 최소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았고, 확대가족적 성격의 세대공동체가 거주했던 장방형 주거 1기를 최소의 구성단위로 상정하고자 한다. 다음은 개별 취락단위의 최소규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기의 장방형 주거를 취락을 구성하는 최소의 사회적 단위 설정하였지만, 1기에 상주할 수 있는 거주 인구의 한계를 고려하면, 그 자체가 농경에 기반한 일반적 의미의 취락단위로 보기에는 무리이다. 1기로 구성된 유적의 경우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1: 아산 명암리유적 11지점, 2: 아산 용화동유적 2지점, 3~5: 아산 용화동유적 2지점 1호~3호 주거지

도면 1. 아산 명암리 유적 11지점과 아산 용화동 유적 2지점 유구배치 및 주거일괄
(유구배치도: 1/3,000, 주거지: 1/300)



1: 아산 용화동유적 2지점, 2: 천안 두정동유적, 3: 공주 제천리유적

도면 2.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최소 구성요소(1/3,000)

〈도면 2-1〉의 아산 용화동유적 2지점을 살펴보면, 수지상으로 분지된 3개의 구릉정상부에 각각 축조된 3개의 주거로 구성된 취락에 해당한다. 취락이 입지하는 구릉지대의 경사가 급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각각의 구릉지대로 주거가 분산되어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천안 두정동과 공주 제천리유적과 같은 구조 및 규모의 취락으로 판단된다. 천안 두정동유적은 곡교천유역의 역삼동·혼암리유형에 해당하며, 공주 제천리유적은 금강중상류 지역에 분포하는 가락동유형에 해당한다. 양유적의 입지를 살펴보면, 저구릉지의 능선을 따라 일정거리를 두고 3기의 주거가 조성된 점에서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두 유적 외에도 3기의 주거로 구성된 유적이 양지역에서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규모와 구조가 당시 취락의 최소 단위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취락유적들의 시간적 위치를 보면, 대체로 전기에서도 이른 단계로 편년된다(나건주 2010). 역삼동·혼암리유형과 가락동유형은 모두 북방에서의 주민이동으로 남하한 집단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주민이동의 직접적인 원인을 단정할 수 없지만 장방형 주거를 이동성이 강한 농경방식과 연결시킨다면, 3기의 주거로 구성된 최소단위의 취락과 이러한 취락단위 3~4개가 수평적으로 결합된 취락의 규모와 구조가 이동성이 높은

집단의 취락구조에 적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집단의 이동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단보다는 최소한의 조직을 구성하여 이주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임상택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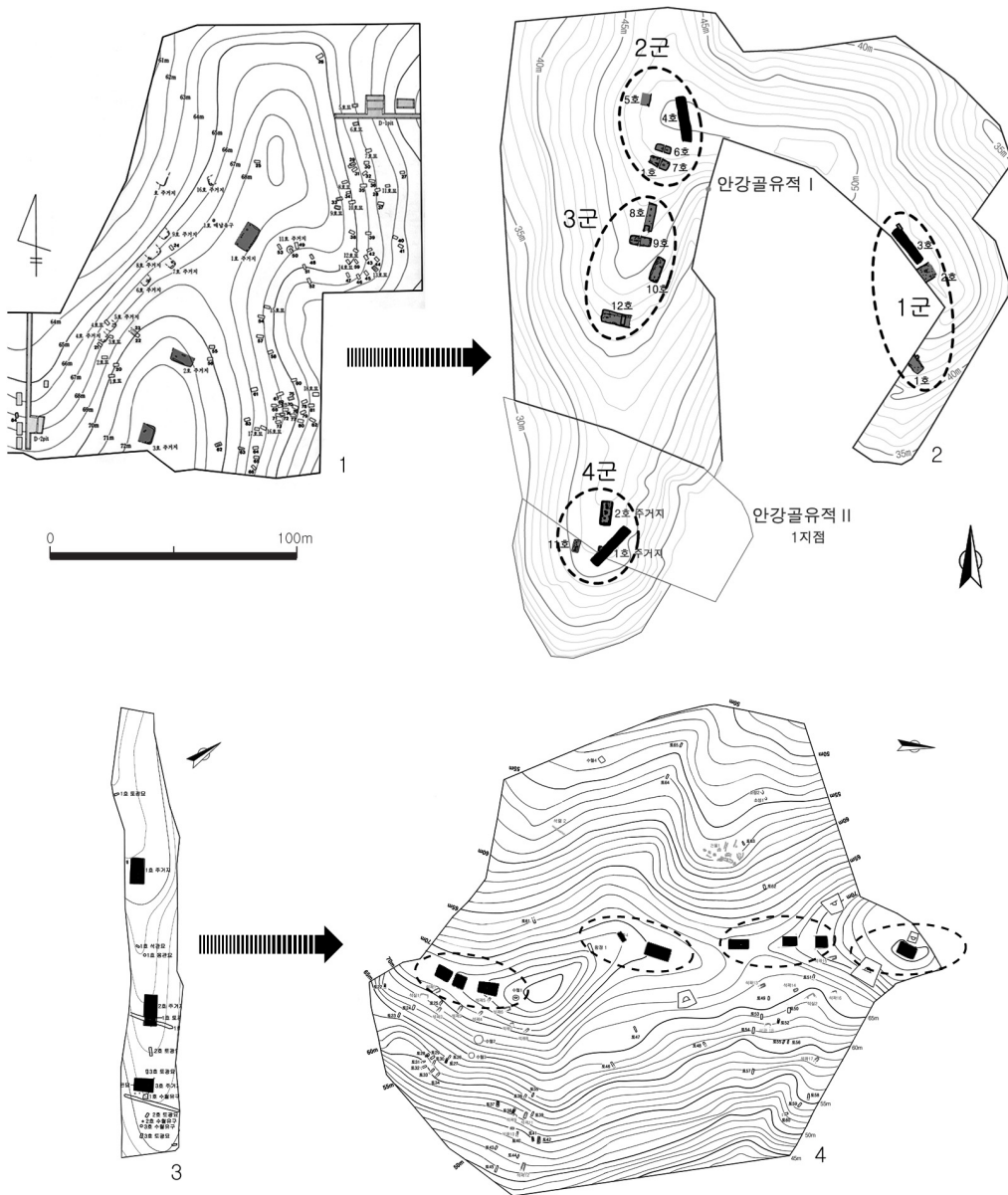
Ⅲ.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성장

3기 내외의 주거로 구성된 유적은 충청지역의 전기유적 전체에 걸쳐 다수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유적들 중에는 출토유물이 빈약하여 정확한 편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편년 가능한 경우 대체로 전기 전엽이거나 중엽에 해당한다. 아산만지역에서는 조기의 미사리유형 유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신석기와 청동기시대의 전환기적인 양상을 보이는 유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역삼동·혼암리유형 집단이 이 지역에 유입된 이후 빠르게 주변의 구릉지대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산만지역 중에서도 곡교천유역의 경우 도시개발로 인한 구제조사가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전기의 취락유적도 높은 분포밀도를 보인다. 이에 반해 그 이전의 신석기시대 취락의 조사빈도는 매우 낮다. 이 지역에서 조사된 신석기시대 취락의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9개 유적에서 총 29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나건주 2013). 청동기시대 유적(72개 유적, 주거지 757기)와 비교할 때 그 차이는 뚜렷하다. 이것은 청동기시대 취락의 확산이 신석기시대에 비해 전격적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관적 조건이 양호한 저구릉지에는 예외없이 청동기시대 취락이 확인되는 양상으로 보아, 당시 취락의 경제영역권은 광역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농경민의 토지활용에 있어 농가에서 반경 3~4km 범위를 넘어선 지역에 대한 경작은 극도의 수지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지역은 거의 경작되지 않으며, 부득이 경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농가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추연식 1997에서 재인용)를 참고하면, 청동기시대 농경민의 토지활용 또한 이동에 따른 비용에 상응하는 수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리내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다. 일정한 지형적 조건을 갖춘 구릉지대에 예외없이 청동기시대 취락이 확인되는 것은 농경을 통한 식량자원이 취락 주변에서 비교적꾸준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기 전엽 단계의 농경은 취락을 구성하는 주거의 수를 고려할 때, 취락 주변의 구릉지대를 경작지로 활용한 화전농경방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정적으로 취락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구가 필요할 것이다. 민족지자료를 토대로 취락의 규모를 구분한 연구에 의하면, 인간 공동체가 자연환경 속에서



도면 3.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최소 구성요소(1/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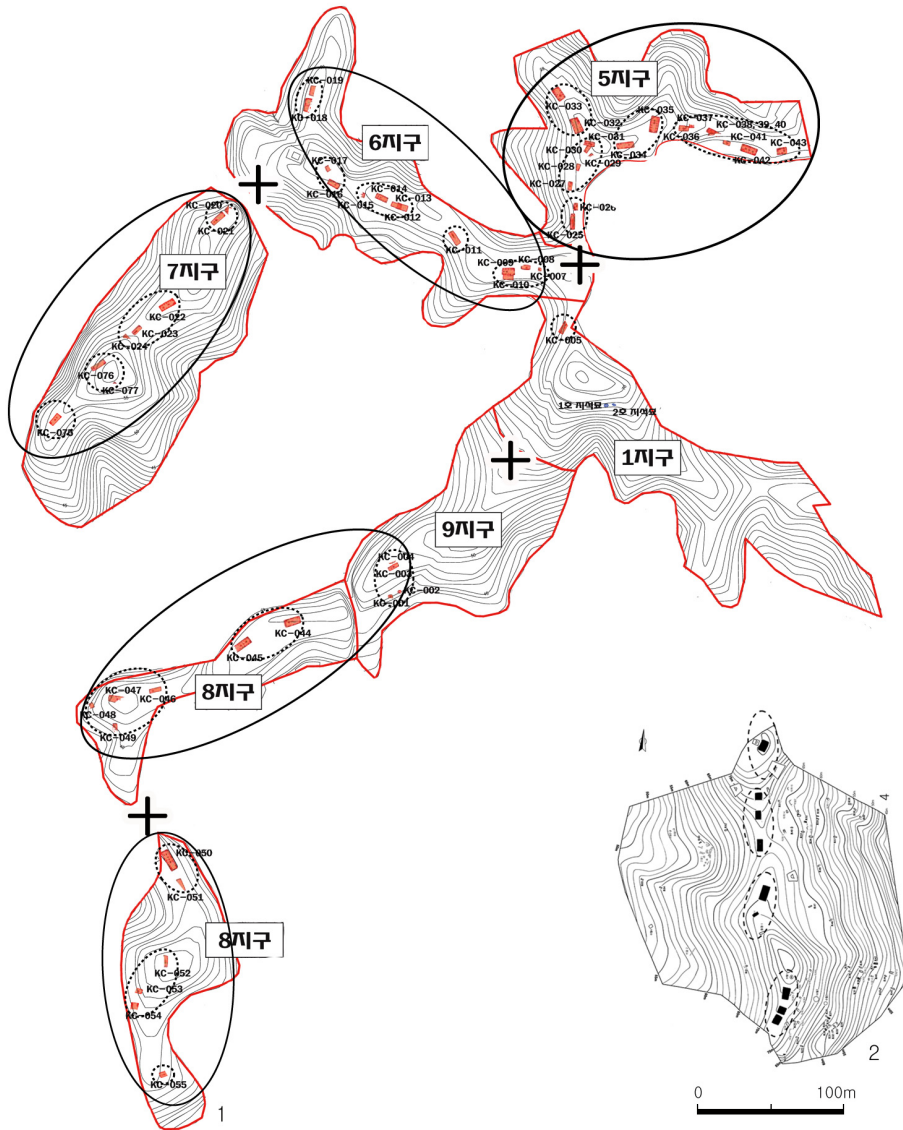
성공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필요한 데 그것은 대략 25인 가량이며, 내적 위계분화 없이도 원활한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규모는 약 150~200인 가량 된다고 한다(Bintliff 1999; 박순발 2002에서 재인용). 3기 내외의 주거로

구성된 소규모 취락의 인구는 아마도 하한기준인 25인 내외에 해당할 것이다. 소규모 취락의 경우 보다 안정적으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락사회의 규모를 키워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자연환경은 자원에측성이 낮은 비교적 척박한 환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원에측성을 높이고 안정된 정주취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경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전기 이른 단계부터 소규모 취락단위가 결합되어 규모를 키워나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3-1〉의 천안 두정동유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3기의 주거로 구성된 가장 소규모의 단위취락에 해당하며, 〈도면 3-2〉의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은 3~4기의 주거지가 모여 단위 주거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주거군의 경우도 3기의 주거지가 기본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장재리 안강골유적은 두정동유적과 같은 기본적인 취락단위 4개가 결합된 형태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금강중하류의 가락동유형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연기 보통리유적의 유구배치도(도면 3-4)를 살펴보면 해발 75m 미만의 저구릉지 정상부의 능선을 따라 선상으로 주거가 배치하고 있는데 4개의 주거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주 제천리유적과 같은 소규모 취락단위 4개가 결합된 취락에 해당한다.

전기 이른 단계의 취락의 규모를 상기해보면 주거의 수가 3~14기 정도이다. 취락에 거주했던 인구의 규모를 고고학적으로 논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성과를 통해 최소한의 인구범위는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복수의 노지가 설치된 장방형의 주거지는 복수의 세대가 동일한 주거에 거주하는 확대가족적 성격의 세대공동체의 주거로 이해된다(이강승·박순발 1995, 안재호 1996). 1개의 노지가 단혼세대를 의미한다고 하면, 2개 노지의 경우 성인 4명+a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울산지역의 울산식 주거지의 경우 역삼동·혼암리유형의 주거지가, 주혈배치는 4각구도로 정형화되고 노지는 1개로 감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거주 인구를 수면공간의 면적을 토대로 2~3인에서 7~9인까지 설정한 연구결과²⁾도 참고한다면, 2개의 노지가 설치된 8m 내외의 장방형 주거 3기로 구성된 취락의 인구는 21~27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기의 주거로 구성된 두정동유적과 같은 소규모 취락의 인구는 25인 내외이고, 이러한 소취락 4개가 결합된 구조인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4개 주거군으로 구성)의 경우 대체로 100인(25×4)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와 같은 거주인구의 추정은, 필요이상으로 큰 주거는 건축과 난방의 비용만 높을 뿐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거의 규모는 거주인원, 즉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김현식 2011: 69). 청동기시대 전기 전엽의 생계경제방식은 화전농경과 수렵·채집을 병행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당시의 잉여생산력은 높지 않았을 것이고, 위계적 계층화도 발생되기 전으로 판단된다. 전기의 대형 주거지에서는 예외 없이 다수의 노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주거의 성격은 거주인원이 많거나 공공집회를 위한 가옥으로 생각된다.



1: 연기 송원리유적, 2: 연기 보통리유적

도면 4. 가락동유형 대형취락의 구조(1/5,000)

전기 취락의 성장은 취락이 입지하는 지역의 생산력이 뒷받침되는 전기의 후엽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락동유형에 해당하는 연기 송원리 유적(도면 22)은 세종시 부지에서 조사된 가락동유형의 취락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형취락에 해당한다. 제천리 유적이 3기 내외의 주거로 구성된 최소단위의 하위취락에 해당하며, 이 보다 규모가 큰 중위취락에는 연기 보통리유적이 해당하는데, 하위의 취락단위가 중위 취락의 주거군으로 편입된다. 가장

규모가 큰 상위 취락인 송원리 유적은 보통리유적과 같은 중위취락 5개가 결합되어 하나의 대취락을 형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2기의 지석묘가 위치하는 구릉지대 정상부를 중심으로 5개의 중위취락이 결합된 구조에 해당한다. 여기서 각각의 취락군의 상호관계는 전반적인 유구배치와 주거 규모의 편차로 볼 때 수평적 관계로 판단된다. 5지구와 6지구의 취락이 다른 취락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인데, 6지구는 입지적 우월성이 인정되는데 반해, 5지구는 군집된 주거의 규모에서 우월한 모습이다. 또한 개별 취락에서도 우월적 모습의 주거가 두드러지게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관계는 개별 취락단위가 수평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차령산맥 이북의 역삼동·혼암리 유형 취락의 경우는 전기 후엽으로 가면서 전엽 단계의 수평적 결합은 사라지고, 구릉정상부의 공지를 둘러싼 환상배치로 바뀌며, 공지와 초대형주거 그리고 중핵 주거군 등의 존재에서 확인되듯이 종적인 체계를 갖춘 취락구조가 확인된다(나건주 2013: 95~126). 아마도 역삼동·혼암리유형 취락사회의 경우 후반기로 가면서 취락 구성원 사이의 유대와 결속력이 강화되면서 보다 구조화된 취락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전기 후엽으로 가면서 양유형의 생계경제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자한다. 결과적으로 역삼동·혼암리유형의 경우 화전농경방식에서 수전농경으로의 전환에 따라 체계적인 노동력 동원과 통제에 따라 구성원 사이의 공동체성이 강화되고, 강화된 공동체성이 물리적인 취락구조에 투영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IV.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구조와 농경생산

1. 곡교천유역 청동기시대 전기 후엽 취락구조의 특징

곡교천유역 역삼동·혼암리유형에 해당하는 취락인 천안 용곡동 두터골유적의 유구배치도를 살펴보면 구릉평탄부의 공지를 중심으로 초·대형주거지 및 중소형의 주거지, 수혈 등의 유구가 군집되어 배치되면서 일정한 주거군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도면 5-2). 초대형 주거지인 2호³⁾가 정상부 평탄면의 남단에 위치하며, 나머지 주거지들은 구릉의 사면에 위치한다. 2호와 정상부의 공지를 環狀으로 둘러싸고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초대형 주거지인 2호의 성격은 주거지의 규모(면적), 다수의 노지, 평탄

3) 용곡동 두터골유적의 2호 주거지는 장축길이 1,831cm, 단축너비 318cm, 면적 58.28㎡ 규모로, 두터골유적의 유일한 초대형 주거지이다.

면 축조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중·소형 또는 대형 주거지와 차별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용곡동 두터골유적의 청동기시대 취락은 2호 주거지와 공지를 중심으로 통합된 하나의 주거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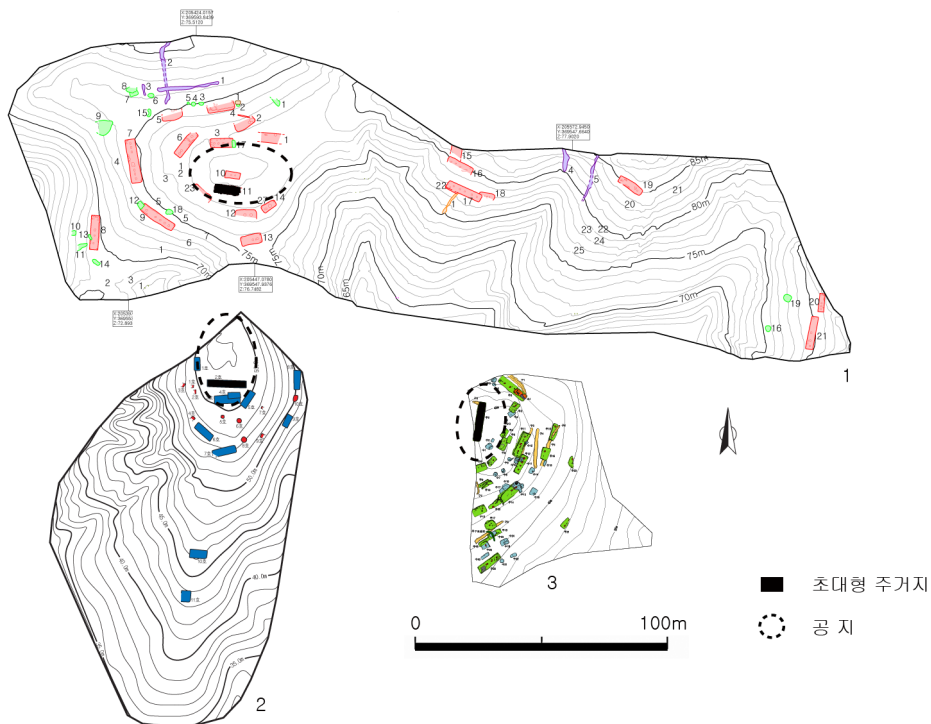
초대형 주거지인 2호 주거지의 북쪽 일대의 구릉정상부에 넓은 평탄면의 경우, 전기 전엽 단계의 취락에서는 이러한 공간에 예외없이 주거가 조성되는데, 주거가 입지하기에 가장 양호한 지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구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른 특별한 기능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유구가 조성되지 않는 구릉정부 평탄면은 전기 후엽 취락에서 흔히 확인된다. 이러한 구릉정상부 평탄면에는 거의 예외없이 그 일대 내지 취락 전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초대형의 주거지가 확인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산 명암리유적(12지점), 천안 용곡동 두터골유적과 아산 대흥리 큰선장유적 등인데, 유구배치 양상을 살펴보면 밀집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인 배치양상은 거의 동일하다. 지형이 가장 높고 평탄한 구릉정상부에 유구가 조성되지 않는 공백지대가 존재하며, 이 공백지대의 외곽에 유적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거지가 위치한다. 나머지 주거와 수혈들은 구릉의 사면부에 위치하는데, 구릉정부의 유구공백지대를 에워싸듯이 배치된 양상이다. 구릉정부의 평탄한 대지는 유구가 입지하기에 가장 양호한 지형에 해당하며 전기 전엽 단계에는 예외없이 유구가 조성되었던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후엽에 이르러, 이러한 공간에 유구를 조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간활용 방법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서 구릉정상부의 유구공백지대에 대한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된 사례는 없다. 지형의 삭평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구릉지대의 정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하식 유구가 아닌 과거 구지표상의 흔적이나 지상으로 돌출된 유구의 경우 현재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전기 전엽 취락의 경우 이러한 구릉정상부와 능선에서도 유구가 모두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삭평으로 인해 원래 존재했던 유구가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공간에 유구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상의 다른 기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기능으로는 취락이 입지하는 구릉지대의 가장 고지대에 해당하고, 유구배치의 중앙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광장과 같은 기능을 상정하고자 한다. 다만 명확하게 그 성격이 규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장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보다는 유구공백지대라는 현상을 반영하여 공지로 지칭하고자 한다. 한편 이 공지의 외곽에는 예외 없이 해당 취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다. 공지의 성격은 이곳에 조성된 초대형 주거지의 성격과도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초대형 주거지는 구릉정상부 및 취락 중심부 입지, 면적의 우월성, 다수의 노지 등에서

여타 주거지들과는 차별된 모습을 보인다. 초대형 주거지의 성격과 기능은 입지와 구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주거 입지의 경우 취락이 위치하는 구릉지대 중앙의 정부평탄면에 위치하고 있다. 구조적으로는 다른 주거지들과는 차별화된 면적과 노지의 수가 특징적이다. 넓은 면적은 주거 인원의 수와도 관련시킬 수도 있는데, 상주인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수의 인원을 옥내에 수용할 수 있다는 점만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다수의 노지의 경우, 난방을 위해서는 많은 수의 노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험고고학적 결과(오규진·허의행 2006: 188~191)를 고려한다면, 취사 또는 조명 등의 기능에 보다 적합할 것이다. 또한 필요이상으로 큰 주거지는 건축과 난방의 비용만 높을 뿐, 그다지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거지의 규모는 주거지의 거주인원, 즉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결정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김현식 2011: 69)도 참고한다면, 넓은 면적과 다수의 노지는 주거의 수용인원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초대형 주거지의 기능은 상시 혹은 일시에 다수의 사람을 수용하는 주거로 추정하고자 한다.



1. 아산 명암리유적(12지점), 2. 천안 용곡동 두터골유적, 3. 아산 대흥리 큰선장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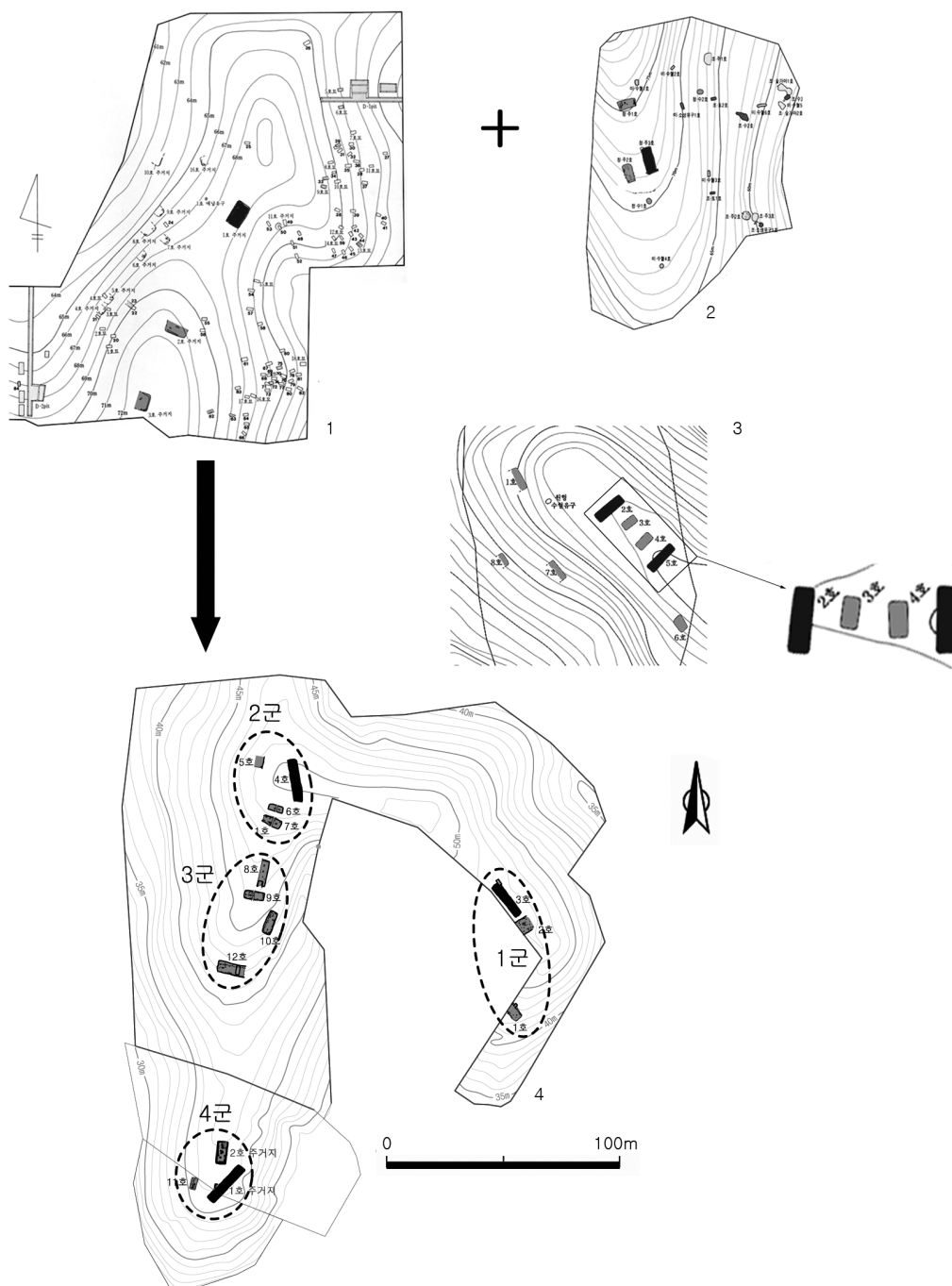
도면 5. 전기 후엽 취락의 공지와 초대형 주거지(1/3,000)

2. 공지와 초대형 주거의 사회적 의미

다음은 초대형 주거의 출현과정 공지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도면 6>은 전기 전엽의 소규모 취락들과 다수의 소규모 취락이 결합된 구조에 해당하는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에 해당한다. 두정동과 용두리 산골 I의 경우 3기의 주거로 구성된 소취락에 해당한다. 두정동의 3기의 주거지는 규모가 장축길이 729~1000cm 사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잔존상태로 보아 1호 주거지의 규모가 크고, 다른 주거지들이 1기의 노지만 설치된 것에 비해 2기의 노지가 설치된 예에 해당한다. 용두리 산골 I의 경우도 두정동과 거의 동일한데, 2기는 각각 727·753cm이며, 나머지 1기는 1,097cm이다. 3기 중 1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확인되지만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갈산리 무리치유적의 경우 능선상에 배치된 4기의 주거지들(2~5호)을 살펴보면, 대형 주거지와 소형 주거지가 짝을 이루어 대칭적인 배치를 보인다. 대형과 소형이 짝을 이룬 2호·3호와 4호·5호의 관계는 입지와 주거의 규모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호간에 수평적 관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은 두정동과 같은 소취락 4개(1~4군)가 결합된 구조에 해당한다(도면 27-4). 3군을 제외한 각각의 군에는 초대형 주거지가 1기씩 분포한다. 3군의 경우 4기의 주거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12호(잔존길이 1,147cm)는 장축의 일부가 유실된 상태인데, 잔존된 상태로도 대형 주거에 해당한다. 다만 확인된 노지가 1기에 불과해 일반적인 초대형 주거와는 차이가 있다. 2군과 3군은 이격거리가 길지 않아 하나의 주거군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각의 주거군의 초대형 주거지들의 규모를 보면 1,828~1,909cm 사이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갈산리 무리치유적과 같이 상호간에 수평적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다만 구릉정상부이며, 취락의 중심에 해당하는 2군이 주목된다. 2군의 초대형 주거인 4호의 서쪽일대에 일부 유구공백지대가 있지만 그 면적이 협소하고, 4호의 배치가 구릉정상부의 장축방향과 직교하는 것으로 보아 공지의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 전엽 단계의 취락의 구조는 3기의 주거로 구성된 소취락의 형태가 갈산리 무리치유적과 같은 점이적인 구조를 거쳐서 장재리 안강골과 같은 다수의 주거군이 결합된 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천안 두정동유적과 같은 소취락 단계에는 주거 간의 규모의 편차가 크지 않았지만,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 단계에는 초대형 주거가 출현하면서 주거간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며 초대형 주거를 중심으로 주거군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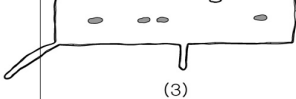


1. 천안 두정동유적, 2. 아산 용두리 산골유적(Ⅰ), 3. 서산 갈산리 무리치유적, 4.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Ⅰ·Ⅱ)

도면 6. 전기 전엽 취락과 초대형 주거지(1/3,000)

주거간 규모의 차이는 <표 1>과 같이 용화동 가재골유적과 같은 후기 후엽으로 가면서 보다 체계화된다. 공지는 주거간 규모의 편차가 커지고 초대형 주거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군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자 한다. 공지의 기능에 대해서는 발굴자료를 토대로 1차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지는 초대형 주거를 중심으로 통합된 주거군의 특정할 수 없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기능적 공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표 1. 아산 용화동 가재골유적 주거의 분류(1/500, 괄호안은 개수)

주거지 노지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노지 無	 (2)	 (1)		
노지 1	 (2)			
노지 2	 (1)	 (5)	 (2)	
노지 3		 (4)		
노지 4			   (3)	
노지 6 이상				   (3)
합계	5	10	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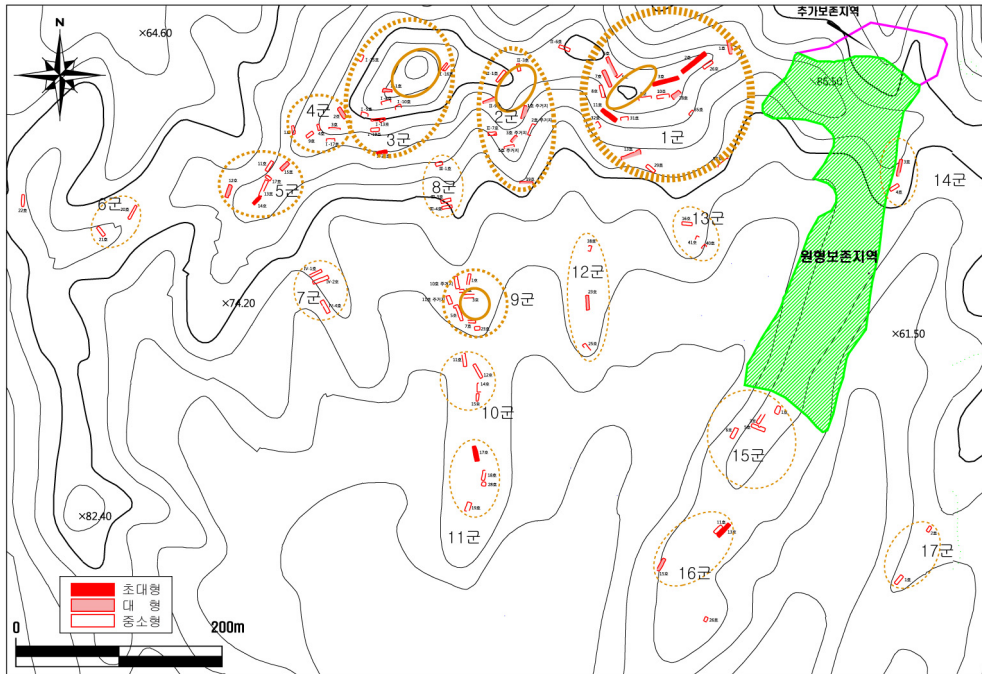
전기 후엽 단계에는 단순한 규모의 확대를 넘어 주거 배치에 일정한 규칙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규칙성의 핵심은 앞서 설명한 공지와 초대형 주거를 핵으로 하여 형성된 취락구조이다. 확대된 취락사회가 안정적으로 영위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사회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도면 5-1>을 보면 아산 명암리유적(12지점)의 경우 구릉선단부의 주거군 동쪽으로도 주거지가 확인된다. 조사범위 밖으로 구릉의 능선을 따라서 추가로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충분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조사되지 않았던 구릉의 나머지 지역도 발굴조사되었는데, 또 다른 구릉정상부에서 2개의 주거군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배상훈 외 2011). 추가로 확인된 2개의 주거군의 중심에도 초대형 주거와 공지가 확인된다. 따라서 아산 명암리 유적(12지점)은, 용곡동 두터골유적과 같은 공지와 초대형 주거를 핵으로 형성된, 취락단위 3개가 결합된 형태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천안 용곡동 두터골 유적의 경우도 동일 구릉지대의 북쪽편 구릉에 용곡동 눈돌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락의 확장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산 대흥리 큰 선장 유적 또한 절토되어 유실된 지역으로 취락이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초대형 주거와 공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주거군 여러개가 결합된 취락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천안 백석동유적에 해당한다.

3. 천안 백석동 청동기시대 취락의 구조

천안 백석동 취락에서도 복수의 주거지와 공지로 구성된 주거군의 성립과 주거군 사이의 위계화 양상이 3期에 이르러 확인된다(나건주 외 2011). 백석동 취락은 모두 17개의 주거군으로 구분 가능하다(도면 39). 주거군 설정을 위한 공간분석은 주거군이 위치하는 자연 지형⁴⁾과 유구의 연속성 등에 기초하여 1차 구분한 후에, 주거 배치양상을 고려하여 최대한 패턴을 인지해서 주거군을 설정하였다. 17개 주거군 중 4개의 주거군(1군·2군·3군·9군)에서 구릉정상부 평탄면의 공지가 확인되었다. 1~3군은 17개 주거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구가 밀집된 대형 주거군에 해당하며, 9군의 경우 중형 주거군에 해당한다. 주거군 사이에도 일정한 위계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⁵⁾, 취락 내에 가장 많은 구성원이 모여 있는 중핵적 주거군의 존재가 위계화의 실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다수의 구릉정상부와 수지상으로 분지된 소능선들을 단위로 지형을 세분하였다.

5) 전고(나건주 외 2011: 65)에서는 9개의 주거군에서 공지를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여 판단한 결과, 일부 주거군의 공지는 단순한 유구공백지대를 무리하게 설정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구릉정상부의 유구공백지대를 주거지들이 명확하게 에워싸면서 배치된 것들로 한정하였고, 그 결과 4개의 주거군에서 공지를 설정할 수 있었다.



※ 감색 실선 : 공지, 감색 파선 : 주거군

도면 7. 천안 백석동 유적 3기의 주거군 설정(1/7,000)

〈도면 7〉의 중앙 상단의 노태산 정상 일대의 구릉정상부에 형성된 1·2·3군은 여타 주거군과 비교할 때 여러면에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 먼저 입지를 보면 취락이 형성된 노태산자락의 가장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는데, 남쪽 일대로 분지된 구릉지대에 형성된 취락 전체를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지형적인 측면에서도 樹枝狀으로 갈라진 구릉지대의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또한 주거군 내에 포함된 주거지 수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2·3기로 편년된 주거지 수를 확인하면, 2군과 3

군의 경우 9기로 동일하며 1군은 18기의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주거군이 대체로 2~6기 사이인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많은 수의 주거지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핵 주거군 하위에는 2군과 3군으로 대표되는 대형 주거군, 4군·5군·9군의 중형 주거군, 나머지의 소형 주거군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중·대형 주거군에는 2~4기의 초대형 또는 대형 주거지가 존재하며, 소형 주거군에는 1~2기의 초대형 또는 대형 주거지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초대형 또는 대형 주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군 사이에는 입지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위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 주거군에 해당하는 2군과 3군의 경우 1군과 같이 노태산 산지의 정상부 일대의 고지대에 위치한다. 2군의 남서쪽으로 분지된 구릉에는 능선을 따라 중형 주거군인 4군과 5군

이 위치하며 그 주변으로 소형 주거군인 6군과 7군이 자리하고 있다. 대형 주거군인 2군에서 남쪽으로 분지된 구릉에는 중형 주거군인 9군이 가까이 위치하며, 구릉의 선단부로 가면서 소형 주거군인 10군과 11군이 위치한다. 대형 주거군 주변에 중형 주거군이 위치하고 구릉의 선단부에 치우쳐 소형 주거군이 형성되는 양상이 두 개의 구릉지대에서 유사하게 확인된다.

표 2. 천안 백석동 유적 주거군의 주거지 구성

주거군	초대형	대형	중형	소형	계	위계	비고
1군	3	5	7	3	18	중핵 주거군	공지
2군	·	4	3	2	9	대형 주거군	공지
3군	1	1	3	4	9	대형 주거군	공지
4군	·	1	3	2	6	중형 주거군	
5군	1	3	1	1	6	중형 주거군	
6군	·	1	1	·	2	소형 주거군	
7군	·	·	3	·	3	소형 주거군	
8군	·	·	3	·	3	소형 주거군	
9군	·	2	3	2	7	중형 주거군	공지
10군	·	2	1	1	4	소형 주거군	
11군	1	·	2	1	4	소형 주거군	
12군	·	1	·	2	3	소형 주거군	
13군	·	·	1	2	3	소형 주거군	
14군	·	1	1	·	2	소형 주거군	
15군	·	1	3	·	4	소형 주거군	
16군	1	1	1	1	3	소형 주거군	
17군	·	·	1	1	2	소형 주거군	

중핵 주거군인 1군의 경우 직접 분지된 소규모의 구릉 2개가 확인되는데 각각 소형 주거군인 12군과 13군이 위치한다. 고재미골 I·Ⅲ지역에 해당하는 구릉일대는 대부분이 녹지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다만 구릉의 선단부 가까운 곳에 형성된 15군과 16군은 모두 소형 주거군에 해당되며, 다른 구릉지대의 상황과 유사한 양상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녹지보존지역에 대형 또는 중형 주거군이 존재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남서 내지 남쪽으로 분지된 각각의 구릉지대에 중소형의 주거군이 형성되어 있고, 노태산 산지의 중앙의 정상부에 백석동 취락의 중핵 주거군인 1군이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천안 백석동 유적 주거군의 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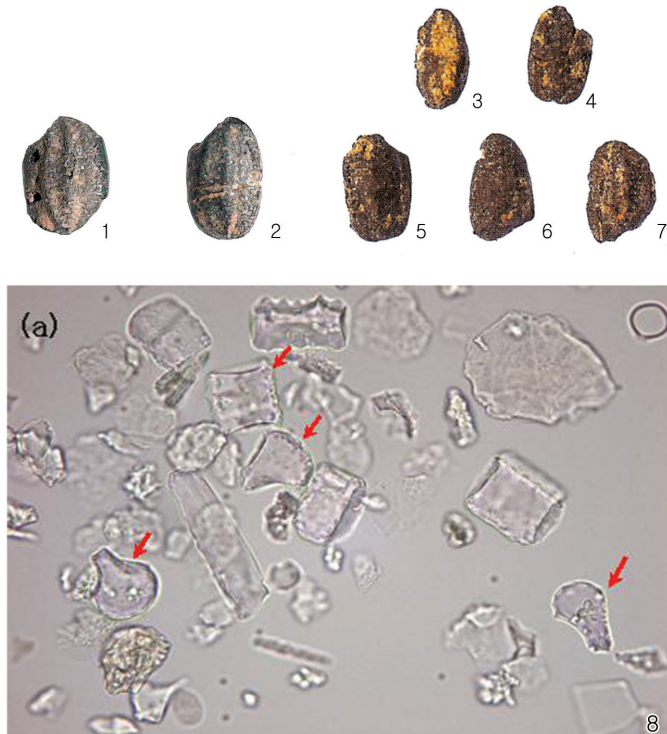
주거군 위계	해당 주거군 개수	주거 개수	입지	공지	초-대형 주거 개수
중핵	1(1군)	18	구릉 정상	공지	8
대형	2(2군, 3군)	9	구릉 정상	공지	2~4
중형	3(9군, 4군, 5군)	6~7	능선 중단	일부 공지 (9군)	1~4
소형	11(6~8군, 10~17군)	2~4	능선 말단	없음	0~2

4.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생산

천안 백석동취락의 중핵적 주거군으로 1군을 상정하였다. 18기라는 압도적인 주거지 숫자, 취락의 가장 고지대, 수지상으로 분지된 구릉지대의 중앙부 입지 외에도, 3기의 초대형 주거지(고Ⅱ-2·3·11호)와 5기의 대형 주거지가 구릉정상의 평탄부 공지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위상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취락의 중핵적 주거군의 성격과 중소 주거군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독립된 연구주제이며, 지금의 필자로서는 능력 밖의 일이다. 주거군들은 일상생활 전반의 생활단위였을 것은 분명할 것이다. 아마도 쌀과 같이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전략적 곡물의 재배와 수확 등에 동원되는 노동력은 취락 전체 집단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석기 중 산지가 가깝고 제작이 용이한 것은 개별 주거군, 산지가 멀고 제작이 어려운 것은 취락 전체 집단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주거군에서는 대부토기, 마연토기를 제외한 일상의 토기제작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정할 뿐이다. 개별 주거군은 공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공간을 점유하며 소규모 생산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복수의 주거군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취락을 구성하며 대규모 생산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일련의 생산과 관련된 집단 행동에 중핵적 주거군을 중심으로 전체 취락 구성원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천안 백석동 고재미골 유적에서는 다수의 탄화곡물이 확인되었는데, 재배식물로는 조, 벼, 동부속, 밀, 보리류가 확인되었다. 벼를 제외하면 畑作物에 해당하며, 벼의 경우 水稻와 陸稻 모두 고려할 수 있으나 畑作雜草의 초본류가 많이 확인되어 陸稻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고환경연구소 2009). 이 외에도 아산만지역의 당진 자개리 유적과 아산 대흥리 큰선장 유적 등에서도 탄화미가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천안 용곡동 두터골 유적에서도 이 시기 벼의 재배와 관련하여 2호, 5호, 6호 주거지의 내부 퇴적토에서 벼(*Oryza Sativa*)의 fan-shaped 규산체가 6~1,231립으로 대량 산출되기도 하였다. 식물규산체가 검출된 내부 퇴적토는 목탄 등의 다량의 유기물을 포함한 유물포함층으로, 주거지에

매립되는 시기는 해당 토층 내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주거지와 동시기의 것들인 것으로 보아 큰 시간차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택 소사동 유적(김병모 외 2008) 가-10호 주거지에서 137알의 탄화미가 세 장방형 주거지의 노지내부의 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1·2=당진 자개리유적(1) 41호 주거지, 3·4·5·6·7=아산 대흥리 유적 14호 주거지
8=천안 용곡동 두터골유적 6호 주거지의 벼(*Oryza Sativa*)의 식물규산체 모습(적색 화살표)

사진 1. 아산만지역 역삼동·흔암리유형 유적 검출 탄화미 및 벼과 식물규산체

위와 같은 점들로 보아 청동기시대 전기 아산만지역에는 벼재배가 일반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벼재배 방식에 있어 ‘발벼’ 또는 ‘논벼’였을지는 관련된 경작유구 가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하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발벼에 비해 논벼가 수확과 재배에 유리하기 때문에, 재배법을 개량해 나가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수도농경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 안정동위원소분석⁶⁾ 방법에 의한 백석동 고재미골유적에서 검출된 탄

6) 수도는 혐기적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혐기성 미생물의 작용인 탈질소의 영향을 받아 질소동위원소의 비가 육도나 다른 발작물에 비해 높아진다. 유적에서 출토된 탄화미 및 조, 보리 등의 발작물의 안정동위원소 비를 측정하여 수도와 육도를 식별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으로, 벼가 육도라면 발작물에 가까운 수치를 보일 것이고, 반대로 수도라면 발작물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庄田慎矢 외 2011: 98).

화곡물에 대한 분석결과가 주목된다. 분석결과, 조보다 벼의 질소동위원소 비가 뚜렷하게 높게 확인되어 수도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庄田愼矢 외 2011: 98).

어쨌든 청동기시대 전기에 벼농사의 존재는 확실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작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논농사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쉽지 않다. 천안 용곡동유적에서 확인된 벼과 식물규산체의 양으로 보아 재배벼에 의한 흔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용곡동 취락의 규모가 수전의 개발과 재배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적어도 관개시설이 필요치 않는 화전 정도의 재배는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천안 백석동유적 정도의 취락규모라면 수전의 경영도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네트워크

사회군집성과 관련하여 대면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간 두의용량의 한계에 의해서 인간집단의 인구수가 200인을 넘어서면 수직적으로 위계화되거나 집단의 분화가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동족혼의 유전자풀이 지닌 부정적인 영향, 즉 열성유전을 피하기 위해 인간집단은 적어도 4~500명의 구성원을 형성한 혼인네트워크를 필요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인간사회는 기본적으로 집단간의 상호관련성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족외혼을 하여 그들의 인구를 영속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대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질병·위험·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도움과 임든 노역에 대한 상호 공유 그리고 자원·기술·생활기술에 대한 실직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한다(Bintliff 1999: 526~529).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농경에 기반한 취락의 사회조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선 소규모 취락의 겨우 주변취락사회와의 관련없이 단독으로 영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취락의 경우 주변의 취락사회와의 상호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락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락사회의 안정을 얻고 생태적·사회적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개별 취락조직의 확대를 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8〉은 세종시 건설부지내 가락동유형 취락분포도이다. 금강의 작은 지천을 경계로 대형 취락에 해당하는 연기 송원리와 송담리 유적이 마주하고 있다. 두 유적 외에는 동쪽의 금강 건너편에 연기 장재리 유적이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송원리와 송담리 유적이 위치하는 각각의 구릉지대 북쪽으로는 규모가 작은 하위 취락들이 분포하고 있다. 5기 이하로 구성된 소취락을 제외하고 6~20기 정도의 중위 취락이 각각 3개씩 확인된다. 이들 중위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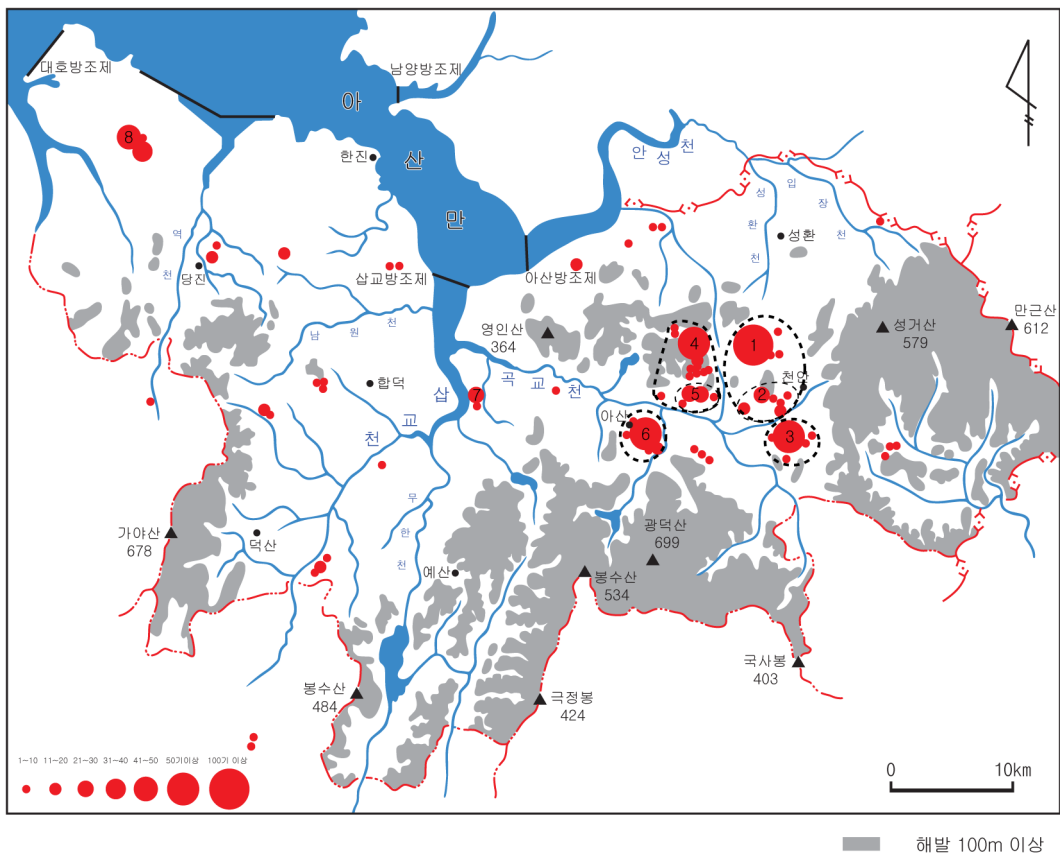
락은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는 공간이 존재하는데, 대체로 중심에서 반경 350m 정도에 해당한다. 그보다 상위 취락인 송원리와 송담리의 경우 900m 정도의 반경의 범위를 두고 중복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거리는 도보로 간단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 모두 동시기에 존재했던 취락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쉽게 이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리이다. 또한 이들 취락군 전체는 4km 반경 안에 분포하는데, 1시간 정도면 이동 가능한 거리에 해당한다.



도면 8. 세종시 건설부지 내 가락동유형 취락의 분포(1/100,000)

1: 연기 용호리유적, 2: 연기 용로리유적(국방문화재연구원), 3: 연기 보통리유적, 4: 연기 연기리유적(75), 5: 연기 연기리유적(74), 6: 연기 연기리유적(78), 7: 연기 송담리유적(34), 8: 연기 송담리유적(30), 9: 연기 송담리유적(29-2), 10: 연기 송담리유적(29-1), 11: 연기 송담리유적(29-3), 12: 연기 송담리유적(28), 13: 공주 제천리 감나무골유적, 14: 공주 제천리유적, 15: 공주 당암리 막음골유적, 16: 공주 당암리 엄고개유적, 17: 연기 당골유적 2, 18: 공주 당암리 소골유적, 19: 연기 송원리유적, 20: 연기 대평리유적(A), 21: 연기 대평리유적(B), 22: 연기 대평리유적(C), 23: 연기 장채리유적(104), 24: 연기 장채리유적(103), 25: 연기 석상리 돌상골유적, 26: 연기 합강리유적, 27: 연기 응암리 가마골유적(B), 28: 공주 당암리 선돌유적, 29: 연기 진의리유적, 30: 공주 당암리 가소골유적

만약 모든 취락이 동시간대에 존재했다고 가정한다면, 상호간에 어느정도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취락의 규모에 따른 위계적 관계였다고 한다면, 2개의 대형 취락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중소규모의 위성 취락이 포진되어 있는 양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당시 취락사회가 소지역 단위의 통합이 이루어진 지역공동체였는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전술했던 바와 같이 가락동유형 취락의 주거 배치는 병렬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치는 위계적이기 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9. 곡교천유역의 청동기시대 전기 유적 분포

1 : 천안 백석동 유적 및 두정동 유적, 업성동 유적, **2 :** 천안 불당동 유적 및 천안 쌍용동 유적, 봉룡동 유적, 용곡동 눈돌두터굴 유적, 아산 장재리 유적, **3 :** 천안 신방동 유적 및 청당동 유적, 두남리 유적, **4 :** 아산 명암리 유적 (3-5-6-9-11-12지점) 및 유적, 용두리 산골 유적, **5 :** 아산 용두리 진터 유적 및 명암리 밖지므레 유적, 용머리 유적, 갈산리 유적, **6 :** 아산 용화동 가재굴 유적, 풍기동, 풍기동 앞굴 유적 및 풍기동 밤줄길 유적 1, 풍기동 밤줄길 유적 2, **7 :** 아산 대흥리 큰선장 유적, **8 :** 당진 성산리 유적

한편 곡교천유적역의 역삼동·혼암리유형의 경우 전기 후엽이 되면 천안 백석동유적과 같은 대규모 취락이 소지역 단위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9>는 곡교천 유적의 취락분포도이다. 대형 취락에 해당하는 천안 백석동 유적, 신방동유적, 아산 명암리유적, 용화동·풍기동유적 등은 곡교천의 지류인 소하천을 사이에 두고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기 취락사회는 거점 취락을 중심으로 소규모 취락과의 결합과 자체적 성장을 통해 확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전기 단계 대형취락의 거리 분포에 있어서 어느정도 사회적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 사회적 요인이란 자원과 관련된 경제적인 이유가 주된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취락사회는 도시적인 체계를 갖춘 취락이 아닌 이상, 주변지역의 한정된 자원의 부양능력(한정된 토지생산성)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집단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분화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기 후엽과 선송국리 단계는 백석동 유적 등에서 농경집약화 과정으로 인해서 인구의 집중이 있었고, 해체과정에서 인구분산이 일어났던 시기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김장석 2003: 48~51)와도 상통한다고 생각된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구조와 변화과정을 통해 당시 취락사회의 성장과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기의 이른 단계에 소규모 취락단위로 이주해온 집단은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치 않는 화전과 같은 농경방식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던 것으로 보았다. 이후 안정적으로 취락을 유지하고 자원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경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되고, 그 데 따라 취락의 규모가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산만지역의 전기 유적에서 확인되는 탄화미 등의 자료로 보아, 당시에 벼재배는 일반적 현상으로 생각된다. 천안 백석동취락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수전의 경영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았다.

당시의 소규모 취락의 경우 주변취락사회와의 관련없이 단독으로 영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주변의 취락사회와의 상호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락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락사회의 안정을 얻고 생태적·사회적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개별 취락조직의 확대를 피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참고문헌

- 권학수, 1993, 「역사시대 마을고고학의 성과와 과제」, 『마을의 고고학』, 제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고환경연구소, 2009, 「천안 백석동 유적의 식물고고학적 조사(씨앗동정)」, 『천안 백석동 고재미골 유적-자연과학분석』, (재)충청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 조사보고 제100집.
- 김백범, 2008, 『아산 대흥리 큰선장 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김병모 외, 2008, 『평택 소사동 유적』,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김장석, 2003,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과정」, 『한국고고학보』 51.
- 김현식, 2011,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공간구조」, 『취락 복원을 위한 다양한 접근』, 제4회 토기·취락분과 연합 워크샵 발표요지문, 한국청동기학회.
- 나건주, 2010, 「아산만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구조와 변천」, 『한국청동기학보』 7.
- _____, 2013a, 「세종시의 청동기시대」, 『세종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제27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 _____, 2013b,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성장과 송국리유형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고고학과 박사학위논문.
- 나건주강병권, 2003, 『아산 명암리 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나건주박현경, 2009, 『아산 용화동 가재골 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나건주배상훈안성태, 2011, 「천안 백석동 청동기시대 취락의 편년과 구조」, 『야외고고학』 10.
- 나건주윤정현남승훈, 2011, 『아산 명암리 유적(12지점)』,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나건주최하영, 2008, 『천안 용곡동 두터골 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류기정양미옥, 2001, 『천안 두정동유적(CD지구)』,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 박순발, 2002, 「촌락의 형성과 발전」, 『강좌 한국고대사』 7,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배상훈·최지연이선아한은주, 2011, 「아산 명암리 굽터골 유적」,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제24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호서고고학회.
- 石井英也(정 암 외 역), 2001,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지역과 경관』, 선학사.
- 안성태, 2008, 『아산 장재리 안강골 유적 I』,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안재호, 1996, 「무문토기시대 취락의 변천」, 『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간행위원회.
- 오규진, 2005, 『서산 갈산리 무리치 유적』,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 오규진·허의행,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 복원 및 실험-전기 주거지를 중심으로」, 『야외고고학』 창간호.
- 이강승박순발, 1995, 『둔산』, 충남대학교박물관.
- 이흥종허의행·조보람·오원철a, 2010, 『연기 송원리 유적』,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 _____, b, 2010, 『연기 송담리 유적』,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 임상택, 2006, 『한국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연기 보통리 유적』 .

최경숙, 2008, 『아산 장재리 안강골 유적 II』 , (재)충청문화재연구원.

추연식, 1997, 『고고학 이론과 방법론』 , 학연문화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공주 제천리유적』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 『아산 용두리 산골유적』 .

庄田愼矢・米田穰・那須浩郎・羅建柱・安承模, 2011, 「安定同位體分析から考える先史農耕における陸稻と水稻」, 『國際심포지움 동아시아 植物考古學 研究의 現況과 課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문화유산연구소·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熊本大學 文學部.

John Bintliff, 1999, Settlement and territory, Companion Encyclopedia of Archaeology Vol.1
Edited by Graeme Baker, Routledge.